

# 지역공약 강력드라이브 '시동'

### 임실군-민주당 도당,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 추진 협의회사 지속 협력 다짐

임실군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임실군은 특히 집권여당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뤄 대선당시 지역공약사업에 포함됐던 섬진강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임실군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균형 종합상황실에서 새정부 대선공약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회의를 갖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임실군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심 민 임실군수와 실과소장,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과 당직자를 비롯해, 문영두 임실군의회 의장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논의된 섬진강네상스 상생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사업내용 등을 비롯해 성수산 산림바이오 힐링센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섬진강네상스 상생프로젝트는 생태·문화·교육·관광·협치가 하나되는 섬진강으로 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선 당시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27개 지역공약사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지역개발사업을 넘어 섬진강의 역사와 함께 한 지역주민의 50년 애환을 달래고 숙원을 해결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다.

또한 성수산 산림바이오 힐링센터 조성사업은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와 구룡정주의 명산인 성수산에 건강과 힐링 관련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실군이 중점 추진 중인 임실군 도심관광개발 등 7대 과제와 10대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임실군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과 발전축진형 지역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반영에 대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노력을 요청했다.

이날 지역공약과 협안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선 심 민 군수는 "균형발전을 핵심기치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우리 임실군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소통과 협력의 시대에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예산확보를 통한 조속한 지역공약 이행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부응해 전북도당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임실군과 협력해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임실군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밭작물 파종시기... 콩 파종 '이렇게'

### 남원농기센터, "적정 재식밀도 유지해야 다수확 가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밭작물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두류의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법을 소개했다.

밭작물은 생육초기 기온의 영향이 많이 받고, 낮의 길이에 반응해 개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종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적정 재식밀도를 유지하면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쉽게 쓰러지거나 병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너무 드물게 심으면 수확량이 줄어든다.

먼저 콩은 6월 상·중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고, 이랑 당 1줄 재배로 장류 콩은 이랑 간격은 70cm, 알·뒤 포기 거리는 15cm, 나물 콩은 이랑 간격이 60cm, 알·뒤 포기 거리는 10cm로 파종한다. 중

자는 10a당 5kg~6kg을 준비하며, 구멍 당 2알씩 3cm~5cm 깊이로 심어주는 것이 좋다.

밭의 경우 성숙기가 빠른 조·중생종은 6월 하순, 성숙기가 늦은 만생종은 6월 중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이랑 당 1줄 재배로 이랑 간격은 60cm, 알·뒤 포기 거리는 10cm~15cm로 파종한다. 종자는 10a당 3kg~4kg을 준비하며 구멍 당 2알~3알씩 3cm~5cm 깊이로 심어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두류는 특히 주변 생육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밭작물로, 재배지역에 따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알맞은 재배법을 준수해야 안정적인 생육과 수량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경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 여성청소년계는 12일 임실을 원광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생과 보육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종·유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임실경찰서는 관내 병설유치원 13개소,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아동의 눈높이를 맞춰 아동학대 예방 예니메이션 영상을 시청해 하고, 보육교사는 자체 제작한 홍보자료 대상별 아동학대 유형·대처요령 등을 교육했다.

김광호 서장은 "실종아동과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임실지역이 되도록 맞춤형 활동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이장단, 일본선진농업 견학 실시

순창군 이장단 30명은 지난 11일, 선진 농업현장 견학을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로 출발했다.

순창군은 해외 선진농업기술의 벤치마킹과 우리군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30명의 이장단을 선발하여 선진농업현상을 주관해 왔다.

이번 일본 북해도 선진농업 연수 역시 우리군 농업 경쟁력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농업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이장단은 일본 홋카이도 농업연구소, 최신 정미시설을 갖춘 호쿠렌다이소판팩토리, 농업체험형 테마파크인 사토랜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최신 재활용시스템을 갖춘 키타시라베시 클린센터 등을 견학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오는 30일까지 강진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순회하는 '제3차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의료보험 지역가입 중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사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격년제로 진행된다.

1차 기초, 구강, 흉부방사선, 혈액,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질환 의심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한다.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로 판정될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의뢰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이동건강검진과 함께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와 협진으로 위암과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국가 암 검진도 병행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추진 되나

### 최근 공연 성황리 마친데 이어 ... 군, 민주당 도당 정책협의회서 지원 건의

제15회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공연이 500여명이 참여해 지난 11일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된데 이어 순창군이 순창농요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협의회에서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정식 건의했다. 금과들소리보존회 류연식 회장은 "금과들소리는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라북도 순창군을 대표하는 유일한 농요부분 무형문화 유산이다"며 "국가 무형문화재로 신속히 승격되어 전북을 대표하는 농요로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과들소리는 사라져가는 순창지역의 전통농요를 채록 발굴하기 위해 예능보유자 이정호씨와 80여명의 보존회원들이 1998년부터 보존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제15회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공연이 500여명이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2호로 지정됐다. 500여년 전부터 전승되어 왔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소박한 마음을 승화시킨 순창의 대표적 농요다.

곡조의 분화가 다채롭고 음계와 선법이 판소리의 우조 및 계면조와 일치하는 특징이 있다.

2002년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에 출전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은 경남 고성농요나 경북 예천통명농요 등 타 지역 국가무형문화재 농요와 비교해 전통성과 우수성에서 뒤지지 않다고 판단하고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본격 추진한다. 관련해서 지난 11일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일원에서 제15회 순창농요 금과들소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희망복지 상담실, 고용·법률까지 확대

2015년 3월에 시작한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은 남원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 이달부터는 법무사, 세무사, 고용복지+센터, YWCA, 공동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 15명이 추가 협력 확대 운영한다.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에서 매주1회(월4회)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주요 민간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11개소 14명이 복지·보건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었다.

이달부터는 전북도 지방법무사회 남원지회 10명, 남원세무서 1명, 남원 YWCA 1명, 고용복지+센터 1명, 공동행정복지센터 2명 총 5개 기관 15명을 추가 구성하여 총 16개 기관 29명

이 협력 운영한다.

이번 확대운영은 지역내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법률·신용·세무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법률·신용·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도고 복지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의회 정례회 개최... 21일 까지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1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임실문화원 위탁운영 등

의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 및 처리한다.

문영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안타깝게도 관내에 A가 발생되었는데, 더 이상 확산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지속된 가뭄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수지, 관정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19° 375ml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